

풀뿌리 세계시민을 만나다

[5] 마을공동체의 답은 돌봄 민주주의다

임현진 서울대 사회학과 명예교수·공석기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연구교수

2025 시리즈기획

풀뿌리 세계시민을 만나다

- [1] 풀뿌리 세계시민은 누구인가?
- [2] '에코 투어리즘'이다
- [3] 선진국은 사회혁신을 이룬 농업국이다
- [4] 가벼운 만남에서 공동체가 시작된다
- [5] 마을공동체의 답은 돌봄 민주주의다**
- [6] 이주민 돌봄이 다문화 사회를 이룬다
- [7] 지역 애착'을 통한 성공적인 귀농, 귀촌, 귀향을 위하여
- [8] 사회적 가치를 먹고 살 수 있는 시니어 일자리를 찾아
- [9] 마을교육 공동체가 거버넌스의 리빙랩이다
- [10] 풀뿌리주민에서 세계시민으로: 한국과 동아시아가 마주한 과제

이번 호는 돌봄을 주제로 마을공동체가 돌봄 문제를 안정적으로 감당할 대안임을 대만과 일본의 사례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돌봄은 국가나 기업 혹은 가정에서 독자적으로 해결할 수 없을 정도로 복잡적이고 섬세한 실천이 필요하다. 구체적인 장소에서 주민과의 지속적 관계 맺기에 기초한 돌봄 실천은 스러져가는 마을공동체 회복력(resilience)의 동력이 된다.

이러한 돌봄은 노년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세대를 넘어 주민 모두가 생애주기적 돌봄에 참여할 때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다. 또한 초고령화와 초저출산, 대도시로의 인구집중이 초래한 지역 소멸 위협의 위기 상황 속에서 돌봄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역 원주민이 개방적인 자세로 이주민을 포용하고 그들이 지역 구성원으로서 지역 이슈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자신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소통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돌봄의 문제는 지역 구성원이 민주적 의사결정 아래 능동적 참여를 통해 실천하고 결과에 대해서도 공동으로 책임을 지는 과정을 반복할 때 지속 가능하다. 돌봄 제공자와 수혜자의 위치는 생애주기적으로 순환되는 것이지 결코 고정된 것이 아니다. 지역공동체 안에서 돌봄의 문제를 공동으로 고민하고 대안을 함께 실천할 때 누구든지 또는 언제든지 '돌봄 받을 권리'를 주장할 수 있으며 존중받게 된다.

만약 돌봄 문제를 일방적 시혜와 복지의 문제로 접근한다면 지역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소수자나 약자가 존중받거나 돌봄을 받을 권

리는 무시되기 쉽다. 우리는 모두 돌봄을 제공하고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존재이다. 돌봄을 가족이나 국가에 일방적으로 요구하거나 사적으로 돌봄 서비스를 구매하는 방식으로는 결코 존엄한 존재로서 돌봄 받을 권리의 본질을 확보할 수 없다.

이런 견지에서 저자들은 대안으로 지역공동체가 돌봄을 함께 해결하는 과정에서 지역의 공동체성을 강화할 수 있음을 강조하고자 한다. 이번 호에서는 대만 타이둥 두란^{都蘭} 지역의 돌봄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지면 제약으로 일본 시가현 히가시오미^{東近江}시 에이겐지^{永源寺} 지역의 돌봄 사례는 다음 호에 더욱 자세히 살펴보고, 여기서는 에이겐지 클리닉의 재택 의료 현장을 간략히 소개하고자 한다. 체계적인 방문 진료팀을 꾸려 재택 의료를 구현하는 현장을 통해 의료진과 주민의 상호 신뢰, 존중, 협력이 이상적으로 구현되는 모습을 보여주고자 한다.

특히 두란 지역 돌봄 사례는 타이둥 지역 원주민 돌봄 문제, 그리고 에이겐지 지역 돌봄 사례는 노인 돌봄 문제에 많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이처럼 돌봄 민주주의가 지역 공동체의 회복력을 제고 함으로써 마을의 미래에 대한 실마리를 보여주고 있다. 우리는 돌봄 실천의 중심에서 풀뿌리 세계시민을 만나게 된다.

지역 주민 돌봄을 위해 열정과 헌신을 아끼지 않는 풀뿌리 세계시민의 특징은 ‘관계 맺기’로 요약할 수 있다. 주민 속으로 들어가는 동시에 지역을 넘어서는 관계망을 확장하기 위한 그들의 분투 모습은 진정 풀뿌리 세계시민의 전형이다. 지역 내 구성원을 존중의 자세로 돌보는 과정에서 리더십^{leadership}, 동료애^{fellowship}, 친밀감^{friendship}, 협동심^{partnership}을 발견하게 된다.

비록 대만과 일본이라는 서로 다른 지역이지만 풀뿌리 세계시민으로서 돌봄 실천자는 동일한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의료진의 섬김의 리더십, 사회적 가치를 공유하는 동료 간의 우애, 지역 주민과의 친밀감을 발견할

수 있다. 또한 돌봄을 받는 지역 주민에게 최선의 돌봄을 제공하기 위해 지역 안팎의 다양한 조직 및 기관과의 협력관계를 강화하는 노력도 주목된다. 풀뿌리 세계시민은 지역 주민 돌봄을 통해 상호 인정, 존중, 신뢰, 협동의 관계를 구축한다. 이처럼 돌봄이 풀뿌리 지역에서 민주적으로 구현될 때 궁극적으로 마을공동체의 회복력은 강화될 수 있음을 반증한다.

타이둥시 두란으로 이주한 의사 위상루^{余尚儒}의 재택 의료 구축 분투기

2024년 10월에 대만 아카데미아 시니카^{Academia Sinica} 방문 교수인 찬킨만^{陳健民} 선생과 함께 타이둥시^{臺東市} 근교 두란^{都蘭} 지역에서 재택 의료 클리닉^{都蘭診所}을 운영하는 위상루 선생을 방문하였다. 두란 지역은 대만 동남쪽에 있는 타이둥시에서 북쪽으로 승용차 40분 거리에 있는 작은 도시이다. 뒤로는 아름다운 산이 우뚝 솟아 병풍처럼 마을을 둘러싸고 있으며, 앞으로는 탁 트인 태평양을 마주한다.

천혜의 아름다운 산과 바다를 두고 있는 이 지역 주민의 다수는 대만의 대표적 원주민인 아미^{Amis}족이다. 이들은 오랫동안 정부로부터 사회서비스나 정책 지원에서 소외되고 차별을 경험하였고 그 결과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최근 이 지역으로 ‘새로운 주민’의 이주가 늘고 있다.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개방적인 주민 태도로 인해 국내외에서 예술가, 문화 창작자, 단기 체류 및 관광객이 증가하고 있다. 소위 ‘핫 플레이스’가 된 셈이다.

외부 이주민 중에 두란 클리닉의 위상루 선생도 포함된다. 그는 두란의 열악한 지역 상황을 주목하고 2016년에 가족과 함께 이곳으로 이주하여 재택 의료를 실천하고 있다. 사회적 약자인 원주민을 주요 대상으로 돌봄을 실천하고 있으며 이주 8년 차로 어느 정도 지역 주민 속으로 들어가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



두란지역 전경

두란 클리닉은 일본의 지역공동체와 재택 의료^{Home-visit Care} 개념을 대만에 도입한 선구적 사례에 해당한다. 위상루 선생은 대학 시절 아내를 만났다. 그녀는 일본에서 유학 온 진보적 역사학도로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이 컸기에 남편의 결정에 늘 지지를 아끼지 않았다.

두 사람은 위 선생의 고향인 대만 중부의 가의^{嘉義}에서 타이둥 두란으로 이주하여 두란 클리닉을 설립했다. 대만 최초의 '재택 의료' 서비스를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돌봄의 혁신이 실천되는 현장이다. 그 핵심은 지역 주민이 함께하는 지역 돌봄공동체를 지향하는 데 있다.

위상루 선생은 의과대학 졸업 후 고향의 가의^{嘉義} 기독 병원의 가정의학과 전문의로 근무하다가 65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진료를 진행하면서 자괴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진료를 하면서 이분들을 돌봄의 대상으로 여기기보다는, 병원 수익을 높이기 위해 진정한 자세로 대면 소통하지 않고 그저 컴퓨터 화면의 수치만 쳐다보면서, 그들의 얘기를 듣기보다는 일방적으로 기계적 처방을 하는 자신을 보게 된 것이다. 비록 좋은 의료시설과 건강보험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돌봄을 제공하는 것에 직접 연결되지 않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진정 돌봄을 받을 권리를 가진 고령 환자들에게

존중의 자세로 인격적 대화를 이어가지 못하는 자신을 보게 되었다. 그저 진료실에 앉아 30초 단위로 환자를 갈아치우면서 오직 병원 수익에 열을 올리고 있는 동안 그들의 얼굴 모습과 잠시 나눈 얘기는 곧 사라지고 만다. 위상루 선생은 이러한 시스템은 결코 국민의 건강한 삶과 존엄을 보장하는 길이 아님을 확신하고 대안을 찾아 나선 것이다.

이처럼 대만의 건강보험 제도는 잘 정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적인 의료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 결과 의료 치료^{cure}를 위한 지원에 무게 중심을 두는 반면에 필요한 세밀한 돌봄^{care}이 간과된다. 시골의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가 원하는 것은 엄청난 의료행위가 아니라 그들이 소외되지 않고 있다는 관심과 돌봄 정책 지원이다. 위상루 선생은 이것을 비판적으로 바라보았고 이를 몸소 실천하기 위해 지역으로 내려가 돌봄 대상자와의 관계 맺기 시작한 것이다.

위 선생은 의과대학 재학시절 자주 산간벽지로의 의료 봉사, 특히 한센병 환자에 대한 의료봉사 활동을 통해 돌봄 대상자와의 인격적인 관계 맺기 경험을 축적할 수 있었다. 그래서 초고령화를 앞서 경험한 일본의 노인 돌봄 사례를 찾아보기 시작하였다. 일본인 아내의 조력 이 큰 도움이 되었고 일본의 다양한 지역공동체적 돌봄 사례를 방문하고 배우기 시작했다. 위상루 선생은 재택

의료 연구를 지원하는 일본 ‘유메이기념재단(勇美記念財團)’의 외국인 최초 수혜자로서 일본에서 3개월 연수를 통해 돌봄 현장을 방문하고 많은 선진 경험을 배우게 되었다.

대만으로 돌아온 그는 재택 의료의 필요성을 인터넷, 블로그, SNS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알렸다. 특히 지역 공동체가 재택 의료와 돌봄을 지속 가능케 하는 촉매제임을 강조했다. 그는 “재택 의료와 돌봄은 지역공동체를 세우는데 가장 좋은 촉매제이다. 재택클리닉이 있는 지역사회는 이 클리닉을 중심으로 주민의 보건과 의료 서비스를 통합하고 다양한 자원을 연계하며 주민이 상호 협력할 수 있는 공동체를 구현할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그뿐만 아니라 의사들의 적극적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2016년에는 재택의료연구회를 설립하였고 2017년에는 대만 재택의료학회를 추진, 전문가 그룹을 만들어 지속적인 재택 의료 연구세미나를 통해 다양한 임상 정보와 사례를 공유하였다.

지난 8년간의 두란 지역 재택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돌아보면 분명 안정적인 재택돌봄 체계를 구축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초기에 홀로 진료를 시작하여 현재 4명의 의사가 두란 클리닉에 참여하고 있다. 물론 위상루 선생을 제외하고는 아직도 타이둥에



두란 재택클리닉 가족들과 함께

정착하지 않고 있다. 이 중 타이둥(臺中)에서 주 2회 진료에 참여하는 한의사가 있다. 이 젊은 전문의는 머지않아 대도시 병원으로 옮길 예정이기도 하다. 그는 의대 교육을 갓 마친 인턴으로 간호사인 여자 친구와 함께 두란 진료소에서 열심히 의료 기술을 습득하고 있다. 두란 클리닉은 두란 지역을 주 4회 순회하면서 이동 진료를 운영하고 있으며 산간 외딴 장소에서 거주하는 노인을 돌보기 위한 정기 방문 진료를 진행하고 있다. 의사와 간호사 그리고 스태프가 진료팀을 이루어 구체적인 장소로 주민들을 찾아 관계 맺기를 수행하는 것이다.

이러한 위상루 선생의 겸손과 섬김의 리더십으로 인해 두란 클리닉은 더 많은 주민이 찾고, 함께 일하는 동료 간의 우애도 강화되고, 주민과의 친밀감도 높아지고 있다. 더 나아가 두란 지역 돌봄에 참여하는 다양한 기관과 스태프와의 정기적 만남과 소통을 통한 안정적 협력 관계도 구축되고 있다. 현장 참관 에피소드를 중심으로 각각의 특징을 좀 더 생생하게 나누고자 한다.

두란 이동진료소에 보여준 섬김의 리더십

2024년 10월 16일 아침, 우리는 두란 클리닉이 운영하고 이동 진료 현장을 방문하였다. 두란시의 북쪽에 있는 흥창(興昌)이라는 곳이다. 매주 화요일 오전 9시 문을 여는 이동진료소로 한두 분씩 연로한 어르신들의 방문이 시작된다. 재가 방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정방문 요양보호사의 도움으로 방문하거나 지역 내 요양센터나 두란 클리닉 스태프가 이들을 모시고 이동진료소를 방문한다. 인근 주민은 직접 걸어서 방문하기도 한다.

방문 진료를 받는 중장년 노인의 다수는 원주민 아미족이었다. 이들은 원주민 언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 언어를 사용할 줄 아는 자원봉사의 통역이 매우 중요하다. 흥창 지역 이동진료소에는 두란시가 무료 제공하는 공간을 활용하고 있으며 의사 1인, 한의사 1인, 물리

치료사 1인, 간호사 1인, 통역 자원봉사자(원주민), 그리고 스태프 1명으로 진료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었다. 스태프는 픽업 서비스, 진료 접수 및 처방, 그리고 추가 진료 예약 안내 등을 담당하였다.

이동진료소에서 가장 인상적인 장면은 바로 위상루 선생이 지역 주민을 환대하는 섬김의 자세이다. 그는 허름한 데스크에 앉아 어르신들을 기다리지 않고 직접 나와서 진료를 위해 방문한 어르신들을 반갑게 맞이하며 환영한다. 어르신의 두 손을 꼭 잡고 환하게 웃으면서 몇 가지 가벼운 질문으로 인사한다. 어떻게 지내셨는지, 일주일간 어떤 일이 있었는지, 지난번에 아픈 데는 지금 어떠한지 등등. 이처럼 위 선생은 주민과의 신뢰에 기초한 관계성 위에서 진료 시간 내내 심각하고 딱딱하기보다는 웃음과 농담을 곁들인 분위기로 대화를 이어간다.

진료를 위해 어르신 한 분이 오시면 4~5명의 의료진이 함께 그분을 맞이하고 절차에 따라 스태프가 등록을 도와드리고 간호사가 혈압 등의 기초 검사 결과를 기록하고 의사는 특정 이슈에 대해 상담 진료를 하고 필요한 약 처방을 준다. 아쉬운 것은 이동 진료 팀에 약사가 없다는 것이다. 간호사가 처방된 약을 준비해 전달하고 어르신들을 한방 진료 및 물리치료 공간으로 모셔다드린다.



이동진료 원격진료 이후 환자와 포옹 모습

위상루 선생이 섬김의 자세로 어른을 대하고 의료진 전체가 자연스럽게 소외받던 원주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그들은 두란 돌봄 진료팀에게 마음 문을 열고 있다. 그 결과인지 모르겠지만 당일 이동 진료를 참관하는 우리에게, 진료받으러 오신 원주민 어른이 관심을 보이며 먼저 인사를 건네기도 한다. 위 선생은 그들에게 우리를 한국에서 온 연구자라고 소개하며 어색한 분위기를 없애준다. 심지어 이 지역에서 평생 살아온 원주민은 진료를 마치고 나서도 우리 옆에 앉아 격변의 동아시아 근대화 과정에 자신의 삶을 투영하면서 원주민으로서 자신이 받은 차별과 고통의 삶을 회고한다.

잘 알려진 것처럼 아미족 원주민은 전통적으로 모계제를 유지하여 결혼하면 남성이 여성 집으로 들어가는 풍습이 있다. 그들은 주로 산이나 바닷가에 거주하며 고기를 잡으며 생계를 꾸려왔다. 지금은 외부인과의 결혼이 증가하여 더 이상 모계제 풍습은 지켜지지 않고 있지만 이런 삶의 전통을 기억하고 현재에 투영하는 것도 큰 의미가 있는 것이다.

중국 본토 인구가 대만으로 이주하면서 아미족을 비롯한 많은 원주민이 상상을 초월하는 피해와 차별을 받았다. 원주민에 대한 지원이 증가한 적이 있지만 아직도 그들은 여전히 사회적 소수자요 주변인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동 진료 차량 위상루 소장과 함께

한 분의 진료를 마친 위 선생은 우리의 얘기 중간중간에 ‘오! 그런가요?’라고 추임새를 넣으며 어르신들의 서사에 호응한다. 또 다른 환자가 방문하자 그를 맞이하려고 뛰어가는 위 선생을 보면서 옆에 앉아 있던 어르신 한 분이 우리에게 “혹시 위 선생의 별명이 무엇인지 아나요?”라고 질문한다. 원주민 말로 ‘자키’라고 부르는데 그 뜻은 빗자루라고 하면서 위 선생은 두란 지역의 빗자루와 같이 온갖 궂은일을 마다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돌봄이 꼭 의료 진료 상담에 그치지 않고 지역공동체와의 협력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대표적 사례로 돌봄 진료팀에 구술사 연구자가 자원봉사자로 참여하고 있다. 그는 원주민들의 삶의 애환을 들어주고 그들이 어떤 삶의 경로를 겪어 왔는지를 근현대사 속에서 그들의 목소리를 통해 재구성하는 연구를 하고 있다. 원주민들은 자신의 얘기를 맘껏 할 수 있고 또한 그것을 들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 자신이 타자로부터 인정받음을 확인하게 된다. 구술하는 동안 내면에 숨겨진 채 따리를 틀고 있던 응어리가 풀어지고 고민이 사라지는 경험을 증언한다. 구술사 작업은 그들에게 자기 삶의 여정에서 의미를 발견하는 시간이기도 그 자체가 힐링이 되기도 한다.

이처럼 구술사 작업은 또 하나의 돌봄 방식이다. 삶을 기록하고 정리하는 것은 사라져가는 지역 원주민의 삶

에 의미를 부여하고 자신의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과 자부심을 갖게 해준다. 돌봄 실천과정에서 지역 주민은 새로운 이주민과의 만남을 통해 원주민 스스로 공동체 회복력을 강화하는 과정을 경험하기도 한다.

주민과의 친밀성과 지역의 협력관계는

지역 돌봄공동체의 핵심

위상루 선생이 선도적으로 견인하는 지역공동체에 기초한 재택 의료 돌봄 사업을 가장 적극적으로 후원하고 협력하는 사람은 다름 아닌 아내 이가라시 유키코^{五十嵐祐紀子}이다. 아내가 지역 돌봄의 목적에 대한 공감과 전적인 지원을 하지 않았다면 위 선생의 헌신과 열정만으로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끌어가기 어려웠을 것이다. 유키코씨는 다음과 같은 돌봄 관련한 에피소드를 나누어 준다.

“우리가 방문 진료를 하는 원주민 할머니 한 분이 가벼운 치매를 앓고 계셨어요. 방문 때마다 별말씀하지 않으시고 눈빛도 생기가 없고 특별한 관심이 있는 것이 없어 보이셨죠. 제가 하고 싶은 일이 있으신지 여쭙보자 할머니는 저를 보면서 ‘집에 가고 싶다’라고 하셨어요. 할머니가 말씀하신 집은 친정이었는데 알고 보니 그 집은 옆의 큰 산 너머에 있었어요. 아마도 가족이 바쁘거나 적절한 교통수단이 없어서 친정 방문을 차일피



흥창 지역 원주민 이동 진료 방문 모습



이동 진료 원주민 원격 진료 모습

일 미룬 것 같아요. 어쨌든 할머니의 너무나도 단순하고 작은 소원은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렵게 느끼고 수년간 그 소망을 이루지 못하고 계셨던 것이죠. 그래서 할머니의 꿈을 이루어 드리기로 하고 친정집으로 옮겨 드리기로 했어요. 드디어 친정으로 가실 수 있음을 말씀드렸을 때 할머니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눈빛에서 광채가 나기 시작했고 가기 며칠 전부터 요리를 다시 하기 시작하셨는데 자신의 특별 요리를 가족과 나누고 싶어서였죠. 출발 당일에는 아침 일찍부터 가장 좋아하는 전통의상으로 차려입고 우리를 기다리셨어요. 할머니는 가는 내내 말씀을 멈추지 않으셨어요. 고향 마을에 도착해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동네 주민과 친지들을 만나자 더욱 기뻐하셨어요. 노인들은 서로 손을 맞잡고 민요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 모습을 지켜본 사람 모두가 할머니와 주민의 재회 모습에 감동했고 자녀조차 이런 어머님의 모습을 처음 보았다고 반응했어요.”

이처럼 치매 회복이 불가능해 보인 할머니가 자신의 지역공동체로 돌아가면서 삶의 활력을 다시 찾고 그들과 끊어진 친밀한 관계 회복에서 생기를 되찾은 것이다. 돌봄은 의료적 처방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수혜자가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친밀한 관계 속에서 분별하고 신속하게 답을 함께 찾아가는 과정이다. 이를 위



위상루 소장의 재가 방문 약처방 점검 모습

해 지속적으로 친밀성을 강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안타깝게도 많은 돌봄 현장 즉, 의료기관, 요양보호센터 심지어 가정 내서도 그 친밀성이 스러지고 있다. 친밀성이 약화되며 돌봄은 어느새 관리가 되고 통제가 되고 무관심한 관계로 전락된다. 돌봄을 받을 권리가 있는 돌봄 수혜자와 친밀한 관계를 맺고 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돌봄의 핵심이다.

위상루 선생을 비롯한 두란 클리닉 재택의료팀은 평소 지역 주민과의 친밀성을 높이기 위해 유연한 방문 일정으로 돌봄 대상을 만나고 있다. 이동진료소 진료를 마치고 위 선생은 갑자기 거동이 불편하여 외출할 수 없는 어르신 방문 진료에 우리를 동승시켰다.

위 선생의 왕진 현장은 매우 친근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다. 거동하지 못하는 아내를 홀로 돌보는 경미한 치매를 앓고 있는 남편, 그리고 어린 손주가 집에 있었다. 주 3회 가정방문 영양사와 약 처방 내용 및 환자 상태를 공유받으면서 평소 환자를 어떻게 돌봐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안내해 주었다. 무엇보다 의사로서 권위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요양보호사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강조하면서 정성을 다해 환자 돌보기를 권했다. 치매 남편의 협조 노력에 대한 격려와 감사 인사도 잊지 않았다.

다음 재택 방문 장소는 약속이 잡히지 않았지만 치매를 앓고 있는 아내를 돌보는 어르신을 잠시 방문하여 상태를 확인하자는 위상루 선생의 제안에 간호사와 젊은 의사는 흔쾌히 동의한다. 위 선생을 반갑게 맞이하는 남편은 과거 마을 리더였다. 집 거실은 마을 사랑방처럼 사용되어 오가는 주민들이 정보를 공유하고 서로의 필요를 확인하는 공공영역과 같은 역할을 하는 곳이다. 위 선생은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부인의 약 처방전 및 복용 내용을 점검하면서 과다 중복된 약 처방을 확인하고 약 복용 상담을 해 주면서 일상적인 건강 체크도 잊지 않았다. 이런 겸손하고 섬기는 모습에 주민들은 감

사하면서 기회가 되면 언제든지 두란 클리닉 활동을 돕겠다는 마음을 전한다.

친밀한 관계를 구축하는 곳이 작게는 집이고, 넓게는 우리가 속한 고향이고, 지역이고, 마을이다. 지역공동체에서 모든 사람이 편안함과 안정감을 느끼고, 자아를 실현하며, 존엄성을 누리며 인생을 의미 있고 존엄된 방식으로 정리할 수 있는 돌봄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을 가능케 하는 것이 지역공동체에 기초한 재택돌봄이다.

위 선생 부부의 지역 주민과의 친밀성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은 현재 진행형이지만 위 선생 부부를 비롯한 두란 클리닉 동료들은 재택 의료가 가장 확실한 대안임을 확신하고 있다. 이런 결과는 바로 지역 내 돌봄 사업을 진행하는 다양한 조직과 기관의 월례 회의에 참석하는 동안 쉽게 확인할 수 있었다.

돌봄 협력 파트너십,

두란 보건의로 관계자 월례 회의 참관기

우리가 두란 클리닉을 방문한 10월 16일, 우연히도 두란 지역 돌봄 관계자 정례회의가 열려 오피서버로 참석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두란 클리닉 2층 회의실에서 가진 정례회의는 두란 지역의 의사, 간호사, 스태프, 재단/NGO 운영의 장기요양(돌봄) 센터 직원, 돌봄 노동자, 두란 보건소 간호사, 환자 운송 업체 관계자 등 약 20여 명이 참석한 매우 큰 규모의 모임이다.

정례회의는 두란 지역에서 돌보고 있는 재택 의료 임상 사례를 공유하며 같은 대상자 혹은 유사 대상자를 돌보고 있는 사람들이 대응 방법을 상호 공유하는 매우 중요한 소통 공간이다. 이 회의는 일본의 지역 돌봄 커뮤니티 정례 모임을 위상루 선생이 벤치마킹한 것으로 2022년 대만 최초로 실시하고 있는 모범사례이다.

분 정도 진행된 이 회의에서는 폐렴과 노로 감염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환자 6명의 돌봄 문제를 중심으로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방문 진료, 영양서비스, 돌봄 대상자/가족과의 상담 등등에 대해 질의응답 형식으로 진행하였다. 의료와 관련된 개인정보는 민감한 사항인데 이것을 어떻게 의료진과 돌봄 관계자만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는가에 대한 연구자의 질문에 자체 인트라 소통 플랫폼이 있어 정보 노출의 위험은 매우 적다고 하면서 의료진과 돌봄 노동자가 관련 정보를 보호하고 환자를 존엄하게 대하는 윤리적 자세가 중요한 과제라는 데 동의하였다.

접적 협력 관계를 유지하지는 않지만 광의의 돌봄 지역공동체를 구성하는데 다양한 지역 주민과 외부 후원자가 협력자로, 때로는 조력자로 참여하고 있다. 재택 의료 즉 가정방문 진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수단 중 하나가 바로 차량 지원이다. 타이둥시 두란은 산악지역이라 SUV 차량이 의료진에게는 매우 중요한 이동 수단이다. 위상루 선생의 부모님 지인이 차량 2대를 기증하여 방문 진료 차량으로 잘 사용하고 있다. 외부인이지만 두란 지역 주민을 위한 돌봄 사업에 적극적인 후원자이다. 대만 정부도 위 선생의 재택 의료 실천과정에 다양한 시범사업을 추가 지원하면서 그 가능성을 확인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원격진료 프로젝트이다.

위 선생은 가정전문의로서 진료를 보지만 보다 면밀한 검사가 필요한 경우, 지역 중소도시 전문의에게 진료를



두란 지역 돌봄 참여자 월례회의 모습

의뢰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한 어르신의 왼쪽 어깨 정밀진단은 정형외과 전문의 소견이 필요하였다. 이동 진료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모바일 초음파 검진 장비를 지원받아 원격진료^{tele-diagnosis}를 실시하였고 근처 종합병원 전문의가 화상대화를 통해 초음파검사 화면을 보면서 원격 상담을 진행하는 모습을 지켜볼 수 있었다.

모바일 초음파 기기가 무려 2000만 원이 넘는 고가의 장비로서 이를 활용한 검사와 원격진료는 분명 지역 주민에게는 신뢰를 줄 수 있는 요인일 것이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기술^{technique}이 아니라 환자와의 공감 능력임을, 위상루 선생이 환자를 대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젊은 인턴 의사는 장비작동과 원격진료에 초점을 맞추려고 하지만 이를 보고 위 선생은 진료 후에 그에게 환자를 꼭 안아드리라고 권하는 것이다. 진정한 돌봄은 연로하신 어르신을 존중하는 자세로 진료하는 것임을 가르쳤다. 친밀감에 기초한 진료가 환자에게 의사를 더욱 신뢰하며 자신을 존중하는 처방에 충실히 따른다는 것을 젊은 의사는 곧 깨닫게 될 것이다. 이것이 진정한 치료이고 치유이고 돌봄이다.

두란 지역 돌봄공동체의 협력 관계는 지역 내부에서도 일어나고 있었다. 위상루 선생은 우리를 특별한 점심 식사 장소로 안내했다. 두란 지역 출신 40대 여성이 우리를 환영했다. 그녀는 연로하신 부모님을 돌보기 위해 타이베이에서 삶을 정리하고 귀향하여 부모님 식당을 대신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그뿐 아니라 주말에는 무료 도시락을 저소득층 노인을 직접 방문하여 제공하는 일을 자발적으로 시작했다. 주중에는 지역사회가 그들을 돌보기 때문에 주말 시간에도 그들은 누군가를 기다릴 것이라는 생각에서 시작하게 되었다고 한다.

여느 식당과 달리 리셉션에선 상품광고 포스터가 아닌 두란 지역에서 열리는 각종 행사 포스터와 다양한 조직과 기관의 뉴스레터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었다. 지역공동체 활동을 주민과 공유하고 참여를 독려하는 자신만

의 방식이다. 두란 재택 의료 클리닉의 이사이기도 한 그녀는 진정 두란을 사랑하고 지역공동체 돌봄에 자발적으로 참여를 확대하는 중이다. 이처럼 위 선생을 중심으로 시작된 두란의 돌봄 지역공동체가 다양한 방식으로 연결 확장되고 있으며 이것은 아래로부터도 꾸준히 진행되고 있어 이후 변화가 주목된다.

히가시오미시 에이겐지 클리닉 하나토 소장의 커뮤니티 돌봄 현장 참관

일본의 재택 의료 관점은 분명하다. 일본 사회는 이미 초고령사회로 진입했다. 이들을 괴롭히는 것은 만성질환, 중대 질병, 회복 불능의 장애이다. 이에 대한 완치를 목표로 하는 치료는 사실상 불가능하기에 초고령자 의료에 대한 관점을 바꿔야 할 때이다. 치료^{cure}가 아니라 돌봄^{care}으로 전환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어르신의 생활지원과 의료 지원방식을 돌봄에 맞추어 지역 내 다양한 전문가와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의사는 더 이상 돌봄체계에서 권위적 지휘자가 아니며 이는 바람직하지도 않다. 안정적인 지역 돌봄체계에는 카리스마를 갖춘 한 명의 리더가 아니라 다양한 행위자 간의 수평적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운영하는 조정자가 중요하다.

에이겐지^{永源寺} 클리닉의 다카시 하나토^{Takashi Hanato} 소장은



하나토 소장 사택과 레스토랑

재택 의료^{home care} 서비스는 의사 홀로 제공할 수 없으며 지역공동체를 통해서만 가능함을 역설한다. 이러한 견지에서 하나토 소장이 자신을 소개하는 방식은 흥미롭다. 하나토 선생의 전공은 무엇일까? 소아과? 내과? 재택돌봄? 놀랍게도 그는 ‘에이겐지’가 전공이라고 답한다. 지역 돌봄을 특별한 전문의료 기술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견해이다.

지역공동체 모두가 지역 맥락에 맞게 상호 존중, 신뢰 및 협력의 자세로, 돌봄 제공자로 혹은 수혜자로 지역을 구성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지역 돌봄공동체를 가장 잘 구성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지역 주민 모두가 지역 전문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아직도 의료 기술과 신약 개발로 모든 질병에서 해방되고 모두가 건강히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순진함이 존재한다. 우리는 모두가 죽음을 맞이함에 있어서 어떻게 죽는가가 중요하지, 어떻게 죽지 않을까를 생각하는 것은 타당하지도 현실적이지도 않기 때문이다.

일본의 재택 의료는 두 가지 특징을 보인다. 하나는 의료 서비스와 장기요양(돌봄)을 통합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한 사람이 죽음에 이를 때까지 그 존엄을 지키도록 지속적 돌봄을 제공하는 것이다.

한국은 90% 이상이 집이 아닌 곳에서 생을 마감한다.

대만은 60% 이상이 집에서 편안히 생을 마감하길 희망한다. 존엄이 생략된 채 생의 마지막이 처리되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다. 어떻게 집에서 편안한 임종을 맞이할 수 있을까?

에이겐지 클리닉에서는 지역 주민의 임종을 점차 더 많이 담당하고 있다. 하나토 소장은 에이겐지의 경우 매년 자신의 집에서 생을 마감하는 사람들이 25~37명에 이르고 있음을 강조한다. 이 수치는 이 지역의 사망자수의 40~50%에 이를 정도로 다른 어떤 지역보다 높다. 에이겐지 클리닉은 2025년 2월 현재 약 70명의 재택환자를 돌보고 있다. 치료가 아니라 다수의 경우는 의료 서비스와 장기요양(돌봄)을 통합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임종까지도 존엄을 지키며 돌봄을 제공하고 있다.

2025년 2월 중순, 일본 시가현^{滋賀県} 히가시오미시^{東近江市} 에이겐지 클리닉의 하나토 소장을 방문하였다. 눈이 하얗게 쌓인 마을은 너무나도 평온해 보였다. 에이겐지 클리닉은 사방이 탁 트인 넓은 들판 중앙에 건강센터로서 클리닉이 있고 왼쪽에는 실내 운동시설 그리고 오른쪽에는 건강식을 제공하는 레스토랑과 하나토 소장 사택이 자리 잡고 있다.

에이겐지 클리닉은 1984년에 히가시오미시 시립병원 분점으로 설립되었고 당시 에이겐지의 인구 목표는 4900명을 유지하는 것이었다. 지금 고령화 비율은 39%



에이겐지 마을 입구



다가시 하나토 소장과 함께

에 이를 정도로 주민 다수가 노인이다. 에이겐지 클리닉에는 3~4명의 의사, 2~6명의 간호사가 근무하고 있지만 입원 시설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 하나토 소장이 2000년 4월에 부임한 이래 계속해서 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 클리닉 운영은 아웃소싱 형식으로 외부 경영진이 담당하고 있다.


하나토 소장, 마을공동체 주민대표 부부, 에이겐지 사회복지사가 우리를 환영해 주었다. 하나토 소장은 의사 권위를 전혀 풍기지 않는 겸손한 이웃집 아저씨 같은 모습이다. 청진기를 챙기고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을 방문 진료할 때에야 그가 의사처럼 보였다. 겸손한 자세로 간호사, 약사, 사회복지사, 영양보호사, 돌봄 코디네이터 등과 소통하고 협력하는 과정은 매우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보였다.

재택진료 현장에서 보여준 하나토 소장의 모습은 한마디로 수평적 파트너십이다. 그가 강조한 것처럼 돌봄(장기요양)은 의사 혼자 제공할 수 없고 마을공동체의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협력하여 제공하는 것이다. 수평적이고 민주적이고 상호 존중과 협력의 원칙을 만들고 그것을 구현하는 것이 핵심이다.

치매로 입원했다가 최근 퇴원한 85세의 남자 M씨의 집에는 그 외에도 8명이 함께 자리했다. 승용차 3시간 거리에서 딸이 아버지 옆에 앉아 있고 약사, 간호사(클리

닉/방문), 영양보호사, 사회복지사, 주간 돌봄 상담사, 그리고 하나토 소장이 함께 환자 돌봄에 대해 의료 및 돌봄 관련 다양한 이슈를 환자 그리고 가족과 함께 유쾌한 분위기에서 논의하였다. 기본적인 약 처방 및 복용, 대사질환 상태, 장운동과 변비 이슈, 목욕과 위생 그리고 비상상황 시 응급 대처 등과 관련하여 모든 참여자가 자유롭게 소통하는 것이 신선해 보였다.

무엇보다 대만 두란 지역 돌봄 관계자 월례 회의에서 목격한 소통 방식과 에이겐지는 한결 달라 보였다. 그 핵심은 의사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축소된 모습이다. 하나토 소장은 회의 중에 절대 주도권을 갖지 않으며 한두번 의료 관련 의견을 내는 정도에 그쳤다. 지속적 돌봄이 우선이기에 약사, 간호사, 영양보호사의 발언이 더욱 빈번하고 중요하였다. 이 모든 것을 조정하는 역할을 의사가 아니라 사회복지사가 하는 것도 흥미로웠다.

또한 약사의 역할도 눈에 띈다. 돌봄 환자가 헛갈리지 않고 꾸준히 약 복용을 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개발하여 영양보호사, 환자 및 가족과 공유하는 것이 주목된다. 환자, 돌봄 의료진, 그리고 가족 모두가 신뢰의 관계 속에서 환자의 존엄을 지켜드리고자 최선의 돌봄의 방법을 함께 궁리하는 모습이 부러웠다. 어떻게 가능할까? 다음 호에서 에이겐지 돌봄 운영과정을 대만과의 비교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사진=공석기 제공



에이겐지 지역 방문진료팀. 환자와 대화 모습